

# SK에너지, 석유·화학 분사 본격화

## 중국 상하이 이사회서 승인 ... 자회사 석유·화학·유탄유 3곳으로 분리

SK에너지(대표 구자영)는 본격적으로 석유와 화학부문 분사에 나선다.

SK에너지는 9월30일 오후 중국 상하이(Shanghai)에서 이사회를 열어 석유와 화학부문 분사안을 승인하고 그동안 밝혀온 분사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2011년 1월1일 SK에너지의 석유부문 CIC(회사내 회사)와 화학부문 CIC를 물적 분할해 SK에너지의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안을 의결하고 주주총회도 소집한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분사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연구개발(R&D) 분야와 자원개발(E&P) 분야를 담당하고 석유, 화학, 유탄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3곳을 거느리게 된다.

SK에너지는 2009년 9월 유탄유부문을 분사해 100%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를 설립한 바 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상장 계열사끼리 교차 보유한 지분을 정리하는 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30>